초연결 사회의 기술 진화 – CPND

C -> Contents : 저작 도구를 공유 / 유통하는 내용물 (우리가 만들 수 있음)

P -> Platform : 공유 / 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

D -> Device : 공유 / 유통하는 내용물의 재현 / 사용하는 단말기

플렛폼 밑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C, P, D가 함께 붙어있었지만 초연결 사회에서는 N(Network)이 중간 사이사이에 들어옴 -> 누구나 쉽게 컨텐츠 사용 가능

Network

-WIFI

-Data Network (3G/4G/5G)

-Bluetooth (디바이스 간의 간단한 정보 교류)

M2M – 기기 간 교류, 서비스 기준으로 컨텐츠 생성 / 컨텐츠 기준으로 서비스 생성 (SW)

P – 서비스와 컨텐츠를 총괄 지원하는 BM의 SW

D – 서비스 실행 앱 / 컨텐츠 재현 앱 (App == SW)

초연결 사회의 핵심은 Smart 기기이면, 기기의 사용을 위해 SW가 필요함

Contents

-영상 콘텐츠 (Video, Image)

-음악

-Text (문서, 원고, 시나리오의 온라인 화)

-Data / Information / Knowledge / Wisdom

->Service와 연계한 다양한 Contents

->Service에 필요한 Contents Provider 관점에서 SW의 활용이 필요함

->SW-Mind

IoT : 데이터 생성 기능(주기능) 혹은 실행 기능

Big Data :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 / 분석 / 활용

Cloud Computing : 수집 / 처리 / 분석 등을 지원하는 환경

Mobile : 초 연결 사회의 사용자 (ex : Smart Phone, Robot, Connected Car, Dron)

-> Smart life에서 Digitalized

ICBM 개념도

사물 -> Broker -> Internet -> 의미 있는 분석(-> 가치 창출) -> User

SW가 꼭 필요함